

# 내년 순천시 람사르 습지 네트워크 회의

7개국 18개 도시 지자체장 참여  
북한도 초청...생태교류 장 주목  
두루미류 보전 국제학술대회도

◇람사르협약=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국제 협약으로, 1971년 2월 이란 람사르에서 채택됐다.



지난 25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받은 7개국 18개 도시 지자체장들이 인증서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받은 순천시가 내년 람사르 습지 지자체장 네트워크 회의를 순천에서 열기로 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인다.

순천시는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받은 18개 도시의 지자체장을 초청하는 네트워크 회의를 내년 5월에 순천에서 연다고 밝혔다. 람사르총회에서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받은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프랑스, 헝가리, 마다가스카르, 스리랑카, 튀니지 등 7개국 18개 도시다.

지난 25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람사르 습지도시 지자체장들은 사무국으로부터 습지도시 인증서를 받고 각 지역의 사

례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람사르 습지도시 간 국제교류를 확대하자는데 의견을 모았고 지자체장 네트워크 결성에 합의했다.

네트워크 사무국은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가 맡고 제1회 회의는 센터가 위치한 순천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순천시는 이 회의에 북한도 초청할 계획이어서 남북 간 생태교류의 장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순천시는 지난 7월 북한 금강산과 함께 순천만이 나란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

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생태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가을이면 어김없이 순천만을 찾는 흑두루미(천연기념물 228호)가 이듬해 봄, 북한에 중간 기착함에 따라 흑두루미로 남북교류의 문을 연다는 복안이다. 람사르 습지 지자체장 네트워크회의가 열리는 내년 5월에 한반도 두루미류 보전 국제학술대회도 열기로 한 것도 의미가 있다.

학술대회는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와 국제두루미재단, 한스자이펠재단의 후원으로 열리며 북한을 비롯한 국내외 두루미

전문가와 활동가 등 300여명이 참가해 두루미 월동 현황과 정보를 공유한다.

이와 함께 순천시는 2020년부터 3년간 남북 공동으로 한반도 두루미류 서식지 복원 사업도 추진한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 람사르 습지도시는 시민주도로 습지보전이 시작되었고, 긴 세월 포용과 혁신의 습지보전 역사를 간직한 도시"라며 "순천에 있는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와 함께 람사르 습지도시간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주민이 행복한 람사르 습지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순천시 조직개편안 마련...문화관광국 신설

1국 3실 2과 늘려  
4차 산업혁명 등 선제적 대응

순천시가 민선7기 시정방향을 반영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자치분권 개편, 국민의 삶의 질 개선,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와 정부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염두한 조직개편안을 지난 2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올해 정부의 행정인력 증원계획 등에 따라 승인된 72명을 반영하고 기존 10국·소, 46과·소, 3전문위, 24읍면동에서 11국·소, 51실·과·소, 3전문위, 24읍면동으로 1국 3실 2과를 늘렸다.

4급 기구의 경우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도서관운영과를 포함하는 문화관광국을 본청에 신설한 것이 눈에 띈다.

기존의 평생학습센터는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표방하는 순천시의 생태환경정책을 집중 추진하기 위해 생태환경센터로 기능을 개편한다. 청소와 환경, 산림, 공원 관련 부서를 배치해 기능별 융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했다.

아울러 안전행정국-자치행정국, 민원복지국-시민복지국, 경제관광국-일자리경제국, 도시건설국-안전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특히 일자리경제국은 허석 시장의 경제분야 시정정책의 핵심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

투자일자리과와 지역경제과, 미래산업과를 배치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청년정책 총괄,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재생, 잡월드 운영 등을 담당한다.

이번에 신설된 미래산업과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미래의 산업과 신성장동력사업 개발, 첨단산단-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 등을 담당하게 될 핵심부서로 주목받는다.

5급 기구는 앞서 미래산업과 신설과 함께 전략기획과를 전략기획실로, 감사과는 감사실, 시민소통과는 자치혁신과로 바꾸는 등 17개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11개 부서는 기능에 맞게 이관된다.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업무분리가 필요한 홍보전산과는 홍보실과 전산과로, 세무과는 세정과와 징수과로, 건강증진과는 보건사업과와 건강증진과로 나뉜다.

노인장애인과, 자원순환과(청소자원과로 명칭 변경), 안전총괄과 등을 각 국의 서무과 전진배치해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점도 특색이다.

시는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친 뒤 시의회 2차 정례회의 결을 거쳐 확정·공포하고, 2019년 초로 예정된 정기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오늘 순천대서 여순사건 70주년 학술대회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아 31일 오전 10시 순천시 순천대학교 약대 신관 죽호홀에서 여순사건 7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열린다.

순천시와 순천대 여순연구소가 마련한 이번 학술대회는 주제 발표와 지역 예술인

들의 노래극 공연, 유족 증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사전행사로 여순사건 동영상 상영과 서혁신-한상필의 노래극 '어떤 날개도'가 공연된다.

주제 발표에서는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와 주철희 순천대 교수가 여순사건의 성격과 민족적·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발제한다.

문동규 순천대 교수와 표인주 전남대 교수, 엄미경 제주대 교수가 '역사적 사건의 기억과 해석'이란 소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여순사건 피해자 유가족의 증언과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정원 갈대 축제' 마무리... 130만명 다녀가

지난 9월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시작된 '정원 갈대 축제'가 지난 28일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축제 기간에 정원을 방문한 관람객은 13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명 증가했다. 순천시는 내실 있는 축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에게 '정원에 있는 축제'가 아닌 '축제가 있는 정원'을 선사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축제 기간 연속 매진 사례를 이어 갔던 공포체험 '귀+신과 함께'는 관람 위주의 정원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정원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추석 연휴 동천 갯벌공원에서 열린 감성 발라드 로이킴 미니콘서트도 동천 갯벌 공연장이 준공된 이래 최대 관람객인 2000여 명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정원의 가을 정취를 머금은 국화와 코스모스, 핑크 물리 등 한평 정원 또한 순천만 국가정원을 일상 속 명소로 각인시켰다.

한편 순천시는 오는 12월 21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정원 속 동화 나라를 테마로 한 겨울 '별빛축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순천=박선현 기자 psc@kwangju.co.kr



사회적경제 한마당 지난 27일 순천시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열린 '순천시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공연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이윤의 사회 환원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의미와 가치 확산으로 사회적 경제활동을 장려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 제공>

## 아이돌보미 137명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순천시는 지난 26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아이돌보미 137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로 순천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류선애)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함께 어울리는 세상만들기'라는 주제로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송태영 팀장이 교육을 진행하고, 아이돌보미들의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순천시여성단체협의회는 2008년부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위탁됐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 13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도 9월말 기준 2769가정에 38423건의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순천=박선현 기자 psc@kwangju.co.kr

본 투시는 고역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자위원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프,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임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슈빌 정문, 모아엘가 우문, 대성베르빌 정문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 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빛가람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

## 태양광발전소 분양

**농림축산식품부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 가중치 1.5배**

**에너지관리공단 노후연금처럼 100KW급 매월 300만원**

**농협 땅+건물+태양광(3억) 년 12% 20년 장기보장**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모듈: LG·화복·큐셀 고효율 단결정
- 인버터: 이태리·ABB, 독일·카고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 · 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